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9. 8.(금)

한-세르비아 총리 회담

- 한덕수 국무총리, 브르나비치 총리와 양국간 교역·투자, 첨단기술, 문화·인적교류 협력 강화 방안 논의
- 회담 계기 한-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서명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8일(금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「아나 브르나비치(Ana Brnabić)」 세르비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△양국 관계 △분야별 협력 △지역 정세 △국제무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.
- 한 총리는 브르나비치 총리가 세르비아 총리로서 13년 만에 방한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했다.
 - 브르나비치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,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.
- 양 총리는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족하였으며, 안정적인 경제·통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.
 - 특히, 양 총리는 이번 브르나비치 총리 방한 계기에 한-세르비아 투자 보장 협정이 서명된 데 대해 환영했다.
 - 또한, 양국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, 양국 국내 절차 완료 후 신속하게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.
 - 또한, 양 총리는 한국이 ICT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강국임을 감안하여 혁신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- 양 총리는 문화 및 인적 교류가 양국 협력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, 양국 미래세대 간 체육, 문화를 통한 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- 양 총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,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.
- 한 총리는 9.8(금) 오후,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브르나비치 총리와 세르비아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동현	044-200-2133

□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

- (추진배경 및 경과) 한국-세르비아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 간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관계 강화 도모
 - '14.10월 양측 협상 개시
 - '23.07월 최종 문안 합의
- (주요내용)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,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 보장
 - △상대국 투자에 대한 대우(공정공평 대우, 내국민 대우, 최혜국 대우)
 - △상대국 투자 수용(收用)시 요건 및 보상 △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 보장 △당사국과 상대국 투자자 간 분쟁을 해당국 국내 법원이나 중재 절차를 통하여 해결 등
- (기대효과) 양국 국민과 기업의 투자가 협정으로 보호
 - 상호 투자 확대 및 이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 기대